

# 한국의 다서(茶書)

— 東茶頌을 中心으로 —

박 동 준

(한학자, 전통차 전수자)

우리 나라에서 저술된 다서로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초의(草衣)스님이 저술한 동다송을 들 수 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동기는 초의의 저서인 일지암문집 속에 “상해거도인(上海居道人)”이란 글에 나타나 있다. 이 글에서 “근래 북산도인(변지화)이 와서 해거도인의 부탁을 받들어 나에게 다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침내 옛 사람들이 전한 뜻에 의거하여 동다송을 지어서 바칩니다.”라고 했다.

초의스님이 이 글에서 밝혔듯이 동다송은 홍현주라는 사람의 뜻에 따라 초의의 나이 52세에 완성된 저서이다.

옛 사람들이 전한 뜻이란 중국의 다서와 전래되는 우리 나라의 차에 대한 문헌을 참조했다는 것으로 초의가 동다송을 지으면서 저간으로 삼았던 문헌들은 대략 만보전서라는 중국의 백과사전과, 명나라 때 장원이란 이가 쓴 다록이라는 문헌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되었을 당시 제자들과 학문을 논강하면서 차를 함께 마셨다 하고 실제 동다기(東茶記)라는 저서가 있어서 제자들이 참고했다고 전하여지나 이 저서는 현존하지 않고 있어 다산의 안목으로 우리나라의 차가 어떻게 고찰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초의가 동다송을 저술하면서 문헌으로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하다 할 수 있겠다. 대략 이런 문헌들이 초의가 동다송을 지으면서 고찰한 문헌의 내용들이다. 그럼 홍현주는 어떤 인물이며, 왜 차에 대한 저술을 초의에게 부탁하게 되었을까 하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홍현주는 정조대왕의 사위로 해거도인은 그의 호이다. 홍현주의 집안 면면을 보자면 홍석주가 그의 형제였으며, 그의 어머니 영수합서씨, 그의 아내인 숙선옹주도 다시(茶詩)를 여러 수 남길 만큼 차에 박식한 안목이 있던 내력있는 집안이었으며, 당시의 권문세가로 당대를 풍미하던 인물들이다. 그의 저서로는 해거재시초(海居齋詩抄)와 문집이 있고, 추사 김정희와도 교류했던 당대의 명사이다.

정조대왕 이후 순조대만 하여도 중국에 내왕하던 지식인 사이에서는 용봉단, 승설차와 같은 명품의 차를 대할 수 있었고, 중국을 통하여 이런 고급차가 수입되기도 하였다. 같은 시대의 인물 중에 추사 김정희는 중국에 가서 완원에게 승설이란 차를 대접받고, 그 홍취와 맛에 고무되어 자신의 호를 승설도인이라고 하였듯이 이 무렵 차는 당대의 지인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던 귀중한 물품이었다.

차의 기질 자체가 선비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은 점도 그 좋아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하겠다. 혹자가 말하기를 “차의 성질은 君子와 같다.” 라고 했듯이

차는 오염되지 않은 담박성과 깨끗함을 지니고 있으며, 탁한 기운에 한번 오염되면 그 생명성을 잃게 되므로 고고한 선비의 이상, 기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차는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대림이라는 이에 의해 처음 지리산에 파종된 이후 신라, 고려를 거쳐 오면서 많은 지식인들의 사랑을 받았고, 많은 시문에 차에 대한 칭송을 남기게 하였다.

신라의 화랑들은 심신의 수련방법으로 차를 가까이 했다는 기록이 있고, 실제 한송정에는 화랑들이 사용했다는 다구가 남아 있거니와 불교의 쇠락으로 조선시대에는 차가 일반적인 기호품이 아니었다 한들, 안목있는 자들의 눈에 어찌 그 가치를 그냥 간과 했겠는가?

고려시대의 청자가 찬란한 문양과 자태로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경제력과 고려시대 지배층의 안목과 전폭적인 지지와 수요에 무관하지 않다. 고려시대 청자의 수입은 초기 선종의 유입과 무관할 수 없고, 선승의 기호품으로 차가 차지한 위치가 크다할진대 고려시대의 다완의 수요도 지배층의 차의 선호와 함께 그 수요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차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홍현주가 초의에게 다서의 저술을 부탁한 것은 당연하며, 자연스러운 것이다. 동다송은 이렇게 저술되어 지금 우리가 차를 연구하는데 훌륭한 지침서가 되고 있다.

처음 동다송이 일반인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대홍사에서 오랫동안 주석하면서 주지소임을 맡았던 응송 박영희 스님에 의해서이다. 응송은 만해 한용운 스님과 불교계에서 함께 독립운동을 한 인물로 초의의 종법손이 되는 분으로 동다송 원본을 소장하고 있으면서 차에 일찍 눈을 떴고, 차의 연구에 많은 업적이 있다.

동다송을 연구하고 초의를 연구하면서 실제로 차나무의 재배법, 차를 만드는 일, 차도구, 차생활의 실제에 이르기까지 실제 수행과 실행을 함께 하면서 차를 연구하였다. 초의와의 시대 차이가 100여년

정도이므로 전통적인 다법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동다송이 응송에 의해 연구되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차에 다술사 주지의 소임을 맡기도 했던 효당 최범술 스님에 의해 독서신문에 연재되면서 동다송은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차의 연구와 초의의 연구에 큰 기폭제가 되었다. 이 당시의 차의 보급운동과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발아되던 시기였던 70년대이므로 동다송의 출현은 우리 나라 차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고, 크고 작은 다회의 모임에서 차를 연구하는데 기초적인 문헌이 되었다.

우리 나라의 차문화도 결코 일본이나 중국에 뒤지지 않으며, 일본의 차문화는 우리 나라의 차문화가 일본에 전래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그럼 동다송은 어떤 체제로 되어 있는가! 동다송의 저술체계는 17절의 송(頌)으로 이루어졌고, 송을 쓰고 뒤에 송의 자료가 되었던 고사, 문헌 등을 주(註)를 첨부하여 설명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송은 자구, 압운, 용사(用詞) 등이 대체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칠언절구로 된 체제이지만 혹은 9자~11자로 길어진 구도 있다. 송이란 시의 여섯가지 체인 육의(六義)〈風, 賦, 比, 興, 雅, 頌〉중의 하나이며, 흔히 덕을 칭찬하는 글을 쓸 때 송의 체제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다.

동다송이란 동다의 덕을 칭송하는 글이란 뜻이 된다. 동다란 뜻은 동 즉 우리 나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중국인이 우리 나라를 일컬어 동이라 하는 것은 중국에서 보면 우리 나라가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불허진 것이다.

동다는 우리 나라의 차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 나라의 차를 칭송하고 있는 것이다. 동다송은 차나무의 임지조건, 차나무의 생김새에서부터 중국의 용봉단차, 몽정차를 들었으며, 차의 효능, 차의 본성, 다사의 어려움, 차만들기 등 차를 마신 후의 아취, 참다운 찻자리 등을 조목조목 열거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모두 노래로 되어 있어서 송

하גיע도 좋고, 글짓는 솜씨도 뛰어나 훌륭한 품모  
를 가지고 있다. 동다송의 원본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은 대략 네 가지 저본이 있는데,

첫째, 태평양 다예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  
둘째, 서울 개인 소장품인 석경각본  
셋째, 불교전서에 수록된 한국 불교전서본  
넷째, 송광사 소장본 등이 있다.

그러나 석경각본을 제외하고는 오자와 탈자가 허  
다하게 보이고 있어 다록이나 만보전서를 함께 참  
고하는 것이 좋고, 현재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태평양 다예관본이 대부분이다. 동다송  
에서 언급된 차법은 모두 탕차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차록이 명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며, 명대  
의 일반적인 차는 탕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던 까

닭에서 연유된 것이다.

말차는 당나라에서 성행하다가 송대에 와서는 제  
조법의 번거러움과 많은 인력의 소모로 그 자체를  
사치스럽게 생각하여 황실에서 탕차로 전용함에 힘  
입어, 송 말 이후로는 탕차가 일세를 풍미하게 되었  
다.

차를 다루는 태도는 초의스님도 동다송에서 강조  
했듯이 정결함과 정성이다. 좋은 차가 있다고 하여  
도 차를 대하는 사람의 성정이 바르지 못하면 차의  
진수를 느낄 수 없다. 좋은 차는 그 품질이 최고급품  
일수록 요구되는 조건도 많게 된다. 물의 선별, 불  
의 조절, 뛰어난 감각과 감수성을 가지고 가장 고요  
하고 청렴할 때, 차는 인간에게 오미(五味)의 오묘  
함을 다 주게 된다고 하겠다. ☉

##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서비스 개시

협회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간 PC통신 천리안을 통해 방재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온 협회는 창립 25  
주년을 맞이하여 4반세기에 걸쳐 축적한 화재안전 기술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수요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홈페이지에는 협회의 주요업무 및 필요한 자료입수 방법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방재기술정보 및 손해보험정보 등 위험관리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담고 있으며,  
또한 협회 사이트를 통하여 국내 보험회사 및 해외 방재기관으로 직접 접속이 가  
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웹호스팅 방식으로 시작하여 자료 서비스의 양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나  
앞으로 전용서버를 구축하여 본격적인 방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kfpa.or.kr"

문의처 : 한국화재보험협회 위험관리정보센터

☎ (02)783-4403(직통), (02)780-8111 (交)353~355